

# ※※※ 알림글 ※※※

티스토리 블로거 “차삐라” 입니다.  
K리그클래식, K리그챌린지를 중심으로  
내셔널리그, 대표팀 기록,  
J리그 소식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클릭하면 블로그로 이동

<http://chappira.tistory.com>



번역 중 오타,오역,의역 등이 있으니  
**반드시 원본을 확인하십시오.**

각 페이지 하단에 원본 주소가 있으며  
클릭하면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J.LEAGUE™ NEWS



©JLEAGUE PHOTOS

작년에 이어 개최. J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각자의 특성을 피치위에서 보여, 부흥지원을 어필했다.

## 「동일본대지진 부흥지원 2013 J리그 스페셜매치」 개최

J리그와 해외 클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경연. 다양한 부흥지원관련 이벤트도 실시

「동일본대지진 부흥지원 2013 J리그 스페셜매치」가 6월16일, 국립경기장에 4만246명의 관중이 모여 개최됐다. 지진 피해진에 연고가 있는 선수에게, 해외 클럽에서 뛰는 게스트선수를 더해「J리그 TEAM AS ONE」팀과, 그 외 선수로 구성된「J리그 선발」팀 대전으로, 작년 7월에 현립카시마사커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에 이어 2회째. 경기는 J리그 TEAM AS ONE이 2-1로 승리했다. 또, 경기장의 광장에서는 모금활동과 특산전등 부흥지원활동에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도 열려, 방문한 팬서포터도 활동에 마음을 새롭게 했다. (2~3페이지 관련기사)

### JLEAGUE™ TOP PARTNERS



編集・発行 公益社団法人 日本プロサッカーリー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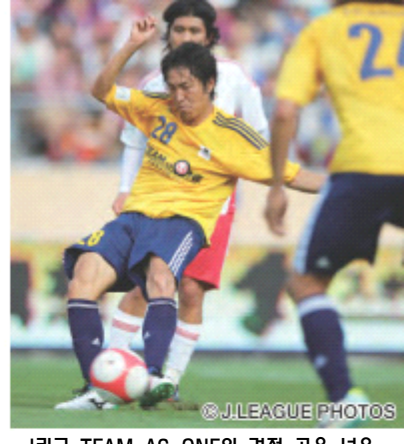


©J.LEAGUE PHOTOS

승리를 목표로 전력 플레이로 경기를 띄우는 小笠原(좌)와田中マルクス闘莉王



松井(우)의 동점골을 山本가 죽하



J리그 TEAM AS ONE의 격전 골을 넣은 金崎



©J.LEAGUE PHOTOS

이번 시즌 득점 랭킹에서도 공동1위인 佐藤가 J리그 선발의 선제골을 마크

# 경기는 「J리그 TEAM AS ONE」 이 역전승

계속 내려던 비도 킥오프전에는 그치고, 가끔 맑은하늘도 보이는 중, 선수를 대표해 요코하마F마리노스의 MF中村俊輔의 부흥지원 선언, 샌다이시立金剛沢초등학교합창단의 국가제창, 거기에 동일본대지진 희생자에 대한 묵념등이 있은후에 경기는 킥오프. 「J리그 TEAM AS ONE」이 「J리그 선발」팀을 2-1로 역전해, 작년 대회에 이어 승리를 장식했다.

J리그를 대표하는 서너들, 그리고 해외 클럽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이 경연한 일전은, 11분에 균형이 깨졌다. J리그 선발이 멋진 콤비 네이션플레이를 보여, 작년시즌 J1리그 득점왕 FW 佐藤寿人が 넣었다. 한편, J리그 TEAM AS ONE도 FW 大迫勇也, 게스트 선수인 MF 松井大輔가 호응을 맞춘 플레이를 보여, 41분에는 골문 앞에서 콤비를 이뤄, 마지막은 松井가 동점골을 넣었다.

J리그 TEAM AS ONE의 역전 골이 나온

트 선수 MF 金崎夢生가 차넣었다. 출전한 선수들이 각자의 특색을 발휘한 경기에서, 물려든 팬,서포터도 하나가 돼 즐기며, 모든 선수들에게 따뜻한 성원을 계속 보냈다. J리그 TEAM AS ONE의 주장을 맡은 MF 小笠原満男은 「많은 사람들이 (경기장예)와, 훌륭한 선수들과 함께 이런 경기를 할 수 있어 매우 의미가 깊다. J리그가 이런 모습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매우 기쁘다」라며, 대회 개최의 의미를 말했다.

## 참가선수목록 (○:서포터투표선발선수,□:게스트선수)



©J.LEAGUE PHOTOS

샌다이시立金剛沢초등학교합창단가 산뜻한 목소리로 국가제창을 했다.



©J.LEAGUE PHOTOS



©J.LEAGUE PHOTOS

中村선수에 의한 부흥지원선언 경기종료후에 배너를 들고 장례를 돌다

J리그 TEAM AS ONE (25명)	J리그 선발(23명)
監督 トニーニョ セレーゾ (鹿島)	監督 森保 一 (広島)
コーチ 手倉森 誠 (仙台)	コーチ 川口 能活 (磐田)
GK 林 卓人 (仙台)	○ 槌崎 正剛 (名古屋)
○ 曾ヶ端 準 (鹿島)	DF ○ 横野 智章 (浦和)
鎌田 次郎 (仙台)	○ 徳永 悠平 (F東京)
角田 誠 (仙台)	○ 中澤 佑二 (横浜FM)
岩政 大樹 (鹿島)	土屋 征夫 (甲府)
西 大伍 (鹿島)	○ 田中 マルクス闘莉王 (名古屋)
加賀 健一 (F東京) ※秋田県出身	○ 原 貴宏 (C大阪)
山本 侑斗 (磐田) ※岩手県出身	MF 柏木 陽介 (浦和)
□ 安田 理大 (SBVフィテッセ / オランダ)	青木 拓矢 (大宮)
MF 栗 勇基 (仙台)	ジョルジ ワグネル (柏)
菅井 直樹 (仙台) ※山形県出身	○ 稲本 潤一 (川崎F)
中田 浩二 (鹿島)	○ 中村 俊輔 (横浜FM)
○ 柴崎 岳 (鹿島) ※青森県出身	石毛 秀樹 (清水) ※体調不良で出場辞退
○ 小笠原 満男 (鹿島) ※岩手県出身	山田 大記 (磐田)
高萩 洋次郎 (広島) ※福岡県出身	山口 豪 (C大阪)
□ 松井 大輔 (スラヴィア ソフィア / ブルガリア)	○ 柿谷 曜一朗 (C大阪)
□ 金崎 夢生 (1.FCニュルンベルク / ドイツ)	FW ○ 原口 元氣 (浦和)
MF 柳沢 敦 (仙台)	キリノ (湘南)
赤嶺 真吾 (仙台)	田中 達也 (新潟)
大迫 勇也 (鹿島)	○ 佐藤 寿人 (広島)
□ 森本 貴幸 (アル ナスル / アラブ首長国連邦)	○ 豊田 陽平 (鳥栖)
○ 鄭 大世 (水原三星ブルーウィングス / 韓国)	森島 康仁 (大分)
□ 大津 祐樹 (VVVフェンロ / オランダ)	
□ カレン ロバート (VVVフェンロ / オランダ)	
□ 指宿 洋史 (K.A.Sオイペン / ベルギー)	





2013년6월16일 15:00kick오프 국립경기장

J리그 TEAM AS ONE 2 1 J리그 선발

[특점] [입장관중수] 4만1246명  
11분 0-1 (J) 佐藤寿人【주심】吉田 寿光  
41분 1-1 (T) 松井大輔【부심】平野 伸一/金田 大吉  
70분 2-1 (T) 金崎夢生【대기심】安元 利充

주최:공익재단법인 일본축구협회  
공익재단법인 일본프로축구리그  
공동개최:일본사단법인 일본프로축구선수회  
일반사단법인 J리그선수OB회  
주관:공익재단법인 일본프로축구리그  
공익재단법인 도쿄도축구협회  
협찬:주식회사코나미디지털엔터테인먼트/일본우편주식회사/  
토요일렉트론주식회사/아사히신문사  
협력:주식회사코나미디지털엔터테인먼트/  
아디다스제팬주식회사/주식회사물텐

大東 和美 J리그 의장 코멘트

오늘, 국립경기장에 4만1000명이 넘는 매우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싶다. 걱정했던 날씨가 경기 시작 직전부터 회복돼, 샌다이시 立金剛 沢 조동화교합창단 여러분의 국가제창이 상쾌한 하늘에 울려 퍼지는 광경은 매우 감동적이었다. 전날 연습 및 오늘 스페셜매치 2일 연속해 동일본 대지진 부흥지원의 모금활동을 실시했지만, 매우 많은 분들이 모금활동에 협력해준 것과, 그리고 양일 모두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활동에 참가해준 것이 강하게 인상에 남아있다.

경기 내용은 2-1로 긴박했지만, 전반에 출전한 선수가 후반에 다시 출전하는 등 평소 볼 수 없는 장면도 있어, 관중 모두 즐길 수 있었는지 않았을까. 리그와는 달리, 어느 한팀을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장 전체가 「순수하게 축구를 관전한다」라는 분위기로 「이렇게 축구를 즐기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이 전해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kick오프전 中村俊輔 선수의 부흥지원 선언 안에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이 있었다. 이것은 J리그가 동일본 대지진 부흥지원을 계속하는 가운데 매우 소중히 하고있는 생각. J리그는 J클럽과 함께 앞으로도 동일본 대지진 부흥지원활동을 계속해간다.



선수들을 격려하러 가는 일본축구협회 명예종재인 高円宮 비전하를 선도하는 오히가시 의장

## 전날 연습&다채로운 경기장 이벤트

국립경기장의 광장등에서는 다양한 이벤트가 열려, 응원하는 팀의 레플리카 유니폼을 입은 팬,서포터들로 북적거렸다. 각처에서 실시된 J리그 TEAM AS ONE 모금에서는, J리그 명예여자 매니저인 足立梨花씨도 게스트참가. 모은 모금은 J클럽,J리그가 열리는 동일본대지진 피해지원 활동의 재원이 된다. 또 「동북인 혼 부스」에서는 출전 선수에 의한 모금활동도

열렸다.

「맛있게 먹고 응원하자!」일본우편 동일본 대지진부흥 응원물산전에서는 피해지의 물산품 판매, 시식을 실시. 동북 현지 음식 판매에서는 규탄카레, 큐탄동등이 인기를 얻어, 식욕을 부르는 냄새앞에 긴줄이 생겼다. J클럽,선수에 의한 동일본 대지진 부흥지원활동 사진전은 작년 대회에 이어 실시. J리그 톱파트 인 캐논마케팅재팬

주식회사의 협력으로, 일본프로축구 선수회가 실시한 부흥지원 활동 모습을 소개. adids부스에서도 선수들이 참가해 이벤트가 열렸다.

경기 전날에는 국립경기장에서 공식훈련이 열렸다. 훈련 전후에는 양 팀 선수들도 참가해 모금활동을 실시. 다음날 경기와 함께, J리그 TEAM AS ONE 모금에 285만 9451엔의 협력을 받았다.



J리그 명예여자매니저인 足立梨花씨도 모금에 힘



동북인 혼 부스에는 이와타현 출신의 岩清水 梓선수(닛테레베레자) 모습



경기전날 공식훈련에도 열심히 팬,서포터가 찾았다



피해지 특산품을 판매. 시식도 열렸다



J리그 백년구상 메신저 Mr.피치도 스페셜매치에 봉사



경기전날에 열린 모금활동에 참가한 선수들



경기당일에는 야마자키나비스코 콘칩이 선택순 1만명에게 제공됐다.



부흥지원활동 모습을 전하는 사진전에도 많은 팬서포터가 방문,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다.



adids부스에서는 스페셜매치 관련 옷등이 판매돼, 선수들이 참가한 이벤트도 열렸다.





## 2013 J리그 야마자키나비스코컵

J리그는 5월30일, 2013 J리그야마자키나비스코컵 공개추첨을 실시해, 결승토너먼트 조함이 우측표대로 결정됐다. 결승토너먼트는 홈%어웨이에 의한 준준결승(6월23,30일)로 시작. 예선리그를 통과한 카시마애틀러스, 카와사키프론탈레, 요코하마F마리노스, 세로소오사카와, AFC 챔피언스리그 2013 출전으로 결승토너먼트부터 출전하게 된 베갈타센다이, 우라와레즈, 카시와레이슬, 산프레체히로시마를 더해 8팀에 의해 경쟁한다.

또 결승은 11월2일 (토,시간은 미정)에 국립경기장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카시마의 柴崎(우)와 요코하마FM의 齋藤가 서로 건투를 빌다

# 결승토너먼트 조함이 결정

## ■ 2013 J리그 야마자키나비스코컵 결승토너먼트 조합

※ 표 좌측의 팀을 홈팀취급한다 (표 우측팀: 1경기 홈팀 / 좌측팀: 2경기 홈팀)



### 공개추첨에 참가한 각 팀의 선수 코멘트

#### ●鈴木啓太(우라와)

「공격적인 선수가 많은 세레소오사카가 상대가 돼, 매우 어려운 경기가 될거라 생각한다」

#### ●柿谷曜一朗(C오사카)

「저는 타이틀 획득한 적 없어, 챔피언 마음을 알고 있지만, 우선 4강,논란의 경기에 집중하고싶다.」

#### ●赤嶺真吾(센다이)

「매우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한경기 한경기를 소중히해 우리들의 죽구를 표현했으면 한다」

#### ●大島僚太(카와사키F)

「첫경기에서 선제골을 넣는게 중요. 프론틀레는 준우승이 많아, 이번은 타이틀을 얻고싶다.」

#### ●大谷秀和(카시와)

「카시와는 야마자키나비스코컵 결승에는(1999년이후) 한적이 없어,올해는 어떻게든 타이틀 얻고싶다」

#### ●千葉和彦(히로시마)

「카시와는 팀을 발견하면 한번에 골을 넣을수 있는 선수가 있다.경기종료까지 마음놓지 않을 것이다」

#### ●齋藤 学(요코하마FM)

「카시마는 경기운영이 매우 좋은 인상. 작년 결승까지 못가 타이틀을 얻고싶다.」

#### ●柴崎 岳(카시마)

「상대가 어떤 클럼이라도 카시마 죽구를 하는게 중요. (H&A) 2경기에서 착실히 결과를 남기도록 하고싶다.」

# 새롭게 2개국 리그와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

J리그는 5월24일에 캄보디아국 리그를 운영하고 있는 캄보디아축구협회와, 6월5일에는 싱가포르(S리그)를 운영하고있는 싱가포르축구협회



사오소카 회장(좌)와 악수를 나누는 오히가시의장

와 각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해외 프로리그와의 협정체결은, 작년 태국,베트남,미얀마에 이어, 총5건이 됐다.

J리그와 이들 나라의 리그는, 제후를 계기로 상호 축구발전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대회운영, 아카데미, 선수 이적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해, 프로리그의 조직, 매니지먼트 퀄리티 향상과 효율화를 노린다.

J리그 오히가시 의장은 캄보디아에서 협정체결 후 「이후, 경기면,운영면, 비즈니스면과 모든 분야에서 협력해갈 것이다.」 라고 말하며, 캄보디아협회의 사오소카 회장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

서는 젊은이의 건전한 정신과 육체가 중요. J리그와의 체결로 특히 젊은층의 육체에 힘을 쏟고싶다」라며 기대를 넣었다.

한편, 베트남 국영TV VTV계열의 케이블TV인 VTVcab사 (VIETNAM TELEVISION CABLE CORPORATION)가 운영하는 Bongda채널, Thethao채널 (케이블TV)에서 올해 7월부터 J1리그 방송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베트남에서는 작년부터 VTC사에서 방송도 계속실시하고 있어, 이 결과 VTVcab, VTC 2개국에서 방송이 실현하게 된다.

## SAMRAI BLUE(일본대표)의 FIFA월드컵 5대회 연속출전이 정해지다

오히가시 J리그 의장의 코멘트(일부)

「5대회 연속으로 FIFA월드컵 출전을 실현된 것은 1993년에 J리그가 시작된 20년전 생각으로는, 꿈과 같은 결과. 일본대표는 FIFA월드컵에서의 우승을 목표로 싸운다.

그 큰 목표를 이루기위해서는 J리그가 세계 톱리그여야 한다. J리그는 많은 아이들의 꿈이며, 그 꿈은 일본대표로 이어지고 있다. J리그도 새로운 도전을 해간다.」



본선 대회 출전 획득을 기뻐하는 선수,팀스태프



원본다운  
클릭

<http://www.j-league.or.jp/document/jnews/206/vol10206.pdf>